

단어장의 사용법

역대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등 다양한 시험에서 선별한 어휘들을 모아 놓은 자료입니다. 50개씩 모아두었으니, 한 번 공부할 때마다 먼저 50개의 단어를 보면서 아는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신 뒤 뜻풀이와 예문을 보며 단어의 의미를 익혀주세요. 특히 한자어의 경우 한자 풀이를 해 두었는데, 한자의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라 뜻과 음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폐해'라는 단어의 '폐'를 보면 '弊폐단 폐'가 떠오르지는 않아도 '폐는 뭔가 안 좋은 뜻이었는데?' 정도의 느낌만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자의 뜻과 음에 익숙해지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8회입니다. 가끔씩 중복되는 단어도 있기는 하지만, 900개 정도의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경험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 외에도,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늘 찾아보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부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 워밍업처럼 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수능날 '어휘력'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피램의 국어공작소 카페

<https://cafe.naver.com/piramgukeo>



피램 스페셜 페이지

<https://special.orbi.kr/piram2025/>



피램 국어 구매처 (대부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

<https://atom.ac/>



For 2025 피램 국어 안내

<https://orbi.kr/00065274355>



단어장 학습 (1)

아래의 어휘들은 역대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각주나 추가 설명 없이 제시되었던 어휘들입니다. 처음 봤거나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는 단어들에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자세한 뜻과 예문이 실려 있습니다. 치사하게 눈알 굴리지 말고, 본인의 진짜 어휘력을 테스트해보는 의의를 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절감하다	추진하다	진흥	고즈넉하다	부진하다
납기	내수	폐해	인습	고루하다
상보적	몽매하다	기예	참람하다	하적하다
분연하다	회한	고매하다	나타	호혜적
경시하다	간과하다	물각하다	기인하다	가변적
고금	형세	연원	장엄하다	응험
청허하다	입적하다	초탈하다	전일하다	회의적
우원하다	유리하다	상아탑	찬연하다	실증
영달	위무	회오	대계	개탄하다
교시적	본원	묘파	광의	협의

각 어휘들의 자세한 뜻과 예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게 정말로 알고 있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절감하다 [切 끊을 절 / 感 느낄 감]

뜻: 절실히 느끼다

예문: 필요성을 절감하다.

추진하다 [推 밀 추 / 進 나아갈 진]

뜻: 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

예문: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다.

진흥 [振 떨칠 진 / 興 일 흥]

뜻: 떨쳐 일어남. 또는 떨쳐 일으킴.

예문: 학술 진흥에 힘을 쓰다

고즈넉하다

뜻: 고요하고 아늑하다.

예문: 산속의 암자가 더할 나위 없이 고즈넉하다

부진하다 [不 아닐 부 / 振 떨칠 진]

뜻: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세나 힘 따위가 활발하지 아니하다.

예문: 학업이 부진한 아동.

납기 [納 들일 납 / 期 기약할 기]

뜻: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예문: 납기를 놓치다.

내수 [內 안 내 / 需 쓰일 수]

뜻: 국내에서의 수요

예문: 내수 상품.

폐해 [弊 폐단 폐 / 害 해할 해]

뜻: 폐단으로 생기는 해

예문: 국가적 사업을 가로막는 단체 행동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습 [因 인할 인 / 習 익힐 습]

뜻: 이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습관.

예문: 그녀의 집안은 고루한 인습에 젖어 있다.

고루하다 [固 굳을 고 / 陋 더러울 루]

뜻: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예문: 부끄럽다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평생 고루하고 무식한 지경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상보적 [相 서로 상 / 補 기울 보 / 的 과녁 적]

뜻: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예문: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해 상보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몽매하다 [蒙 어두울 몽 / 昧 어두울 매]

뜻: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
예문: 몽매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에 [技 재주 기 / 藝 재주 예]

뜻: '기술'과 '예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예문: 남사당패는 각종 기예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참람하다 [儻 주재념을 참 / 濼 넘칠 람]

뜻: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
예문: 그는 나이가 어린 국왕이 등극하자 참람한 역심을 품었다

허적하다 [虛 빌 허 / 寂 고요할 적]

뜻: 텅 비어 적적하다.
예문: 다만 동짓달 저녁의 빈 하늘만 허적하게 걸려 있을 뿐이었다.

본연하다 [本 근본 본 / 然 그럴 연]

뜻: 어떤 특성이나 성질 따위가 본디부터 그러하다.
예문: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다가 마지막에 흠 한줌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본연한 모습일까?

회한 [悔 뉘우칠 회 / 恨 한 한]

뜻: 뉘우치고 한탄함.
예문: 회한이 서린 목소리.

고매하다 [高 높을 고 / 邁 멀리 갈 매]

뜻: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예문: 고매한 인격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타 [懶 게으를 라 / 惰 게으를 타]

뜻: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예문: 사람은 편할수록 나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호혜적 [互 서로 호 / 惠 은혜 혜 / 的 과녁 적]

뜻: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
예문: 호혜적인 조치

경시하다 [輕 가벼울 경 / 視 볼 시]

뜻: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예문: 나는 그 선수를 신출내기라고 경시할 수 없었다.

간과하다 [看 볼 간 / 過 지날 과]

뜻: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예문: 나는 그가 따라 주는 술을 마시면서도 그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몰각하다 [沒 빠질 몰 / 覺 깨달을 각]

뜻: 깨달아 인식하지 못하다.
예문: 수정이는 형규와의 영화 약속을 몰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외출 준비를 했다.

몰각하다 [沒 빠질 몰 / 却 물리칠 각]

뜻: 아주 없애버리다.
예문: 아래로는 칠 남매의 자식과 많은 하인을 거느리는 지주 맥 주부로서, 정착 자기 자신은 완전히 몰각하고 대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만 살아왔다.

기인하다 [起 일어날 기 / 困 인할 인]

뜻: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예문: 그의 병은 전적으로 과로에 기인한다.

가변적 [可 옳을 가 / 變 변할 변 / 的 과녁 적]

뜻: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예문: 최근의 정국은 자못 가변적이다.

고금 [古 옛 고 / 今 이제 금]

뜻: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예문: 과연 고금에 드문 명공이다.

형세 [形 모양 형 / 勢 형세 세]

뜻: 일이 되어 가는 형편
예문: 형세가 불리하다.

연원 [淵 못 연 / 源 근원 연]

뜻: 사물의 근원
예문: 병의 연원은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장엄하다 [莊 싹씩할 장 / 嚴 엄할 엄]

뜻: 싹싹하고 웅장하며 위엄 있고 엄숙하다
예문: 태양이 산 너머 광활한 벌판에 불이라도 지른 것처럼 서쪽 하늘이 온통 화려하고 장엄하게 타올랐다.

응험 [應 응할 응 / 驗 시험 험]

뜻: 드러난 징조가 맞음. 또는 그 징조
예문: 지금 가뭄을 만나 어느 신이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전혀 응험을 보지 못하였다

청허하다 [淸 맑을 청 / 虛 빌 허]

뜻: 잡된 생각이 없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예문: 표현 양상은 시각과 청각 등의 대비와 대구를 통해서, 청허한 맛을 살렸다

입적하다 [入 들 입 / 寂 고요할 적]

뜻: 승려가 죽다.
예문: 그 스님은 나이 74세, 법랍 36년으로 입적하였다.

입적하다 [入 들 입 / 籍 문서 적]

뜻: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다.
예문: 양자를 호적에 입적하다.

(11)

나는 학이로다

화자는 자기 스스로를 ‘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학’이 하는 행동 및 생각은 모두 화자의 행동 및 생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읽어 봅시다.

박모(薄暮)*의 수목색 거리를 가랑이면
슬픔은 명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 박모: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땅거미.

‘학’이 된 화자는 ‘박모’의 수목색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가랑이면’은 ‘갈 양이면’(갈 때면) 정도로 바뀌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대충 ‘걷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만 오셔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해가 진 이후의 수목색 거리를 걷는데, ‘슬픔’은 명인 양 목줄기에 맺혀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슬픔’에 가득찬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아니, 정확히는 ‘학’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맺혀 있는 ‘학’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음도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매이는 느낌, 한 번쯤은 느껴 보셨을 거예요.

저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코
* 향수할 가나안: 그리워할 기독교적 안식처.

다른 이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맥락상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같은데, ‘창창한 담채화’라는 이미지를 통해 다른 이들의 고향은 푸르른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푸르른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화자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릅니다. 즉, 돌아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공간에 갈 길을 몰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학’이 된 화자는 남들과 달리 ‘가나안’이라는 고향과 같은 공간에 돌아갈 수 없어 ‘슬픔’을 삼키며 ‘박모의 수목색 거리’를 걸을 뿐인 것이었습니다.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화자는 이처럼 ‘가나안’에 갈 수 없어 슬프지만,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머리에 설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득한 풍랑인 양’이라는 표현을 보니, 그 ‘솔바람 소리’는 화자와 멀리 떨어진(아득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솔바람 소리’는 ‘꿈 푸르른’ 것, 즉 화자의 꿈인 ‘가나안’과 관련된 것일 텐데, 이러한 소리가 ‘아득한 풍랑인’ 것처럼 들리는 화자의 슬픈 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춤고
자랑은 호음로 높이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욱되도다

다시 말하지만 화자는 ‘학’입니다. ‘학’이니 ‘깃’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깃’이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춤다고 해요. 고향에 갈 수 없어 ‘슬픔’을 삼키고 있는 ‘학’의 처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와중에 화자의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자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이용하면, ‘학’이 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높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홀로 높다!) 슬프기만 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즉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욱되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슬픔을 삼키고 있으면서 ‘자랑’만 높은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다는 의미겠지요.

어둑한 저갯가에 지향없이 서랑이면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 마르는 학이로다

- 유치환, 「학」 -

이렇게 자조하는 화자는 ‘어둑한 저갯가’, 즉 ‘박모의 수목색 거리’를 계속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데,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한 오래기 ‘갈대’인 양 서 있습니다. ‘학’이 되어 ‘깃’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서 있고 싶는데, 그럴 수 없으니 바람에 날리는 ‘갈대’인 것처럼 서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처지를 집약해 스스로를 ‘마르는 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스스로를 ‘갈대’처럼 가만히 서서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말라가는 ‘학’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12)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가세

화자는 '저 산'에 돌아와 울고 있는 '저 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산'은 '어둡고 캄캄한' 곳인데, '저 새'가 그곳에 돌아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화자도 궁금했는지, '가세'라고 하면서 '저 산'에 가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가 봤더니, '저 산'에는 '우리 그리움'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면 당연히 화자와 '저 새'를 의미하겠죠? 화자는 '저 새'를 '우리'라고 묶어 부를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새'는 '저 산'에 갇혀 있는 '그리움' 때문에 울고 있던 것이었어요.

화자는 '저 어두운 들', '저 어두운 강'을 넘어서 '저 남산 꽃산'에 꽃 피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갇혀 있는 '저 산'은 '어둡고 캄캄한' 곳인데, 이곳을 떠나 밝은 '저 남산 꽃산'으로 가자는 것이죠. '저 새'와 함께 현재의 처지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 김용택, 「저 새」 -

이번엔 '산'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산'은 '어둠 태우며 / 타오를 산'이라고 해요. 이제 보니, '저 남산 꽃산'은 '저 산'을 벗어나 도달할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저 산'의 어둠을 태우면 나타나는 공간이었네요. 화자는 어둠으로 가득한 '저 산'이 언젠가 '저 남산 꽃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러한 '꽃산'에서는 '저 새' 역시 '눈부시게 깃쳐 오를' 것이예요. 비록 지금은 '저 새'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서 밤새 울고, 화자와 함께 '어둠' 속에서 꽃같이 아픈 눈을 뜨고 있지만, 언젠가 '저 산'이 어둠을 태워 '꽃산'이 되면 눈부시게 날아 오를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 새'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지는 화자 역시 가지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있을 것이라는 점,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자아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외부세계의 대상을 인식합니다.